

'임금님 진상품' 무등산 수박 살릴 묘책 없나

광주시·북구·전남대 등 TF 구성도 효과없어 명맥 잇기 '빨간불' 기후변화·농가 감소에 매년 생산량 줄어...올해 1900통 어려워

광주 대표 특산물 '무등산수박' (일명 푸랭이)의 명성을 되살리기 위한 묘책이 없어 명맥 잇기에 빨간불이 켜졌다.

무등산수박의 명맥이 끊긴다는 우려에 지난해 4월 무등산수박 육성 태스크 포스(TF)팀까지 꾸렸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1년만에 사실상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이 탓에 역대 최저 생산량을 기록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수확량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11일 광주시 북구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무등산수박 육성 TF팀이 구성됐다.

광주시, 북구, 농업기술센터, 광주농협, 무등산수박영농조합법인, 전남대 등으로 구성된 TF팀은 각종 사업을 통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바로 활동에 들어갔다.

TF팀은 총 9농가중 한 농가를 대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무등산수박 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생육에 도움이 되는 미생물을 호스를 거쳐 3.3㎡(1평)당 2l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영양분을 공급했다.

생육 초·중반까지는 효과를 보이다가 막상 수확 때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 등의

영향이 있었지만, 생산량 감소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미생물 영양분 공급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에 무등산수박 농가들은 TF팀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작 지난해 TF팀의 활동은 회의 2차례, 현장 방문 2차례에 그쳤고 올해 TF팀의 활동은 단 1건도 없다는 점에서도. 조직만 유지할 뿐 무등산수박을 살리기 위한 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광주시도 무등산수박 명맥 잇기를 위해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지난해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쉽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그동안 지원하던 비료 외에도 올해 새롭게 야외 재배 농가를 위해 비닐하우스 설치(시비·구비 각 30%, 개인 부담 40%)를 지원하기도 했다.

비닐하우스 1동당 수박 90개 모종을 심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생산량 증대도 기대되고 있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예산 역시 지난해 광주시와 북구청 각 3560만원에서 올해는 각 4682만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재배농가는 감소했다. 지난해 9곳이던 재배 농가 중 한곳은 무등산수박 생산량 감소로 수입



지난 10일 광주시 북구 금곡동에서 문광배 광주 무등산수박 작목반 총무가 무등산 수박 생육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이 줄고 있어 어쩔수 없이 무등산수박 재배를 포기했다.

결국 이 농가는 곡성으로 이전해 다른 농작물 재배를 시작했다.

생산량도 크게 늘지 못했다. 광주시와 북구에 따르면 올해 무등산수박의 예상 생산량은 1900통이다.

무등산수박 생산량은 2021년 2500통에서 2023년 1200통으로 급격하게 줄었다. 지난해에는 오랫동안 비가 내리고 일조량이 부족해 수박이 무르거

나 타버려 역대 최저 생산량을 기록했다.

이에 무등산수박재배 농가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문광배 무등산수박작목반 총무는 "농업기술센터와 전남대 등이 참여한 만큼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기대와 달리 무등산수박의 생육에 대한 연구나 적극적인 개입이 거의 없어 1년이 지난 현재 제대로 된 성과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문 총무는 "TF팀은 거의 해체됐다고 봐야 하고, 현재는 직접 밭품을 팔아 장성의 비료 영양제 수입회사를 통해 스스로 생육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광주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올해도 TF팀을 운영할 계획이라 해체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농가들이 고령화되고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뚜렷한 성과가 없었던 것은 맞지만 농가들의 참여가 미미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글·사진=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수능 현재 출제경향 유지되면 재학생 불리”

시교육청, 6월 모평 지난 수능처럼 어려워...영어 1등급 4%선 그칠 듯

지난 4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가 지난해 수능과 유사한 수준에서 변별력을 갖춘 시험으로 분석됐다.

광주시교육청은 모평의 출제기준이 수능에서도 유지되면 상대적으로 재학생에게 크게 불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11일 광주 진학부장협의회와 진로진학지원단 진학분석팀이 광주 고교 6월 모의평가 가채점 점수를 분석한 결과 국어의 경우 매우 어렵게 출제된 작년 수능보다 다소 쉽게 출제됐다.

공통 과목 중 독서는 개념과 여러 관점을 다루는 지문에서 내용 파악이 어렵고, 문학은 현대소설과

현대시가 변별력 있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수학은 계산에 시간이 걸리는 문항이 다수여서 최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지만, 전반적으로 작년 수능보다 다소 쉬운 수준으로 평가됐다.

영어는 작년 수능과 동일한 문항 구성으로 EBS 교재와 50% 안팎 연계율을 보였으나 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교육청은 전했다.

절대평가인 영어의 경우 1등급 비율이 보통 7~8% 정도 나오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4%선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가채점 결과, 국어·수학·탐구 원점수 300점 기준 광주교육대학교는 215점 내외, 한국에너지공과대

학은 268점 내외가 지원 가능성으로 관측됐다.

전남대는 행정학과 207점, 경영학부 214점, 정치외교학과 200점, 의예과 277점, 치의학전문대학원 273점, 전기공학과 238점 등이 지원 가능 점수로 제시됐다.

조선대는 의예과 275점, 치의예과 272점, 약학과 269점 안팎으로 예상됐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모평은 재학생들에게 매우 어려운 시험으로 분석됐다”면서 “수능에서 N수생 증가를 고려한 난이도 조절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고3 수험생이 큰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오는 12일 오후 7시 광주 교육연구정보원 대강당에서 고3 진학부장을 대상으로 가채점 결과분석 설명회를 연다. /윤영기 기자 penfoot@

“민청학련, 5·18 밀거름 됐다”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민청학련 50주년 학술토론회

1974년 유신정권에 항거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사건이 5·18민주화운동의 밀거름이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등에 따르면 12일 오후 3시 광주시 동구 공동 미로센터 미로극장 1관(신관3층)에서 '광주사회운동에서 민청학련 세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가 열린다.

이 자리는 민청학련 사건 50주년을 기념해 민청학련 세대들의 활동범위를 다양한 영역으로 넓히고 민청학련 사건을 학술적으로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교수는 '유신시기 광주전남 지역 사회운동'이라는 주제의 발표문을 통해 민청학련 사건과 5·18민주화운동의 연관성을 설명한다. 그는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육성한 이들이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의 주축이 됐다"면서 "정상용, 윤한봉 선생의 후학들이 전대 총학생회를 구성했고, 이들이 군부의 군화발에 당당히 저항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청학련을 거쳐 사회운동 역량이 축적되고 1880년 5월에 결실을 맺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옛 전남 도청을 마지막까지 사수한

시민군 정신을 주목했다.

민청학련 자수기간이 끝난 시점에 광주지역에서는 끝까지 유신 반대 시위를 벌여 스스로 구속된 인사들이 적잖았다. 이 정신이 계엄군이 들어닥치는 상황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옛 전남도청을 지킨 시민군에게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 받은 이철 민청학련 동지회 전 상임대표와 당시 민청학련 호남지역 총책을 맡은 김정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가 발표자로 나선다.

한편 민청학련 사건은 유신 정권이 1974년 4월 3일 긴급조치 4호를 발동하고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인사 1024명을 조사해 그 중 180여 명을 비상군법회의에 넘긴 사건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7~8월 지리산 계곡에 발 담그세요

화엄사 계곡 등 3곳 한시 개방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됨에 따라 지리산 계곡 일부 구간이 개방된다.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달 간 계곡 3곳을 개방한다고 11일 밝혔다.

개방 구간은 총 3.45km로, 화엄사, 피아골, 문수리 계곡 등이다. 화엄사 계곡(0.62km)은 화엄사주자장 입구(교량)를 시작해 구충암까지 허용되고

피아골 계곡(2.5km)은 연곡사 사찰 매표소부터 직전마을 상단 끝 지점까지 출입이 가능하다.

지난해부터 개방이 시작된 문수리계곡(0.33km)은 황부자 만박 앞 계곡부터 밤재마을 입구까지 출입할 수 있다. 다만 계곡 내 취사, 야영, 수영, 목욕, 세탁이나 영업 행위 등은 금지된다. 위반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의거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